

職業能力開發研究
 第11卷(2), 2008. 8. pp. 1~23
 ©韓國職業能力開發院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황 여 정** · 백 병 부***

본 연구는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1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졸자를 대상으로 취업 여부 및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 로짓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취업 여부 및 대기업 정규직으로의 취업 여부에는 대학소재지, 전공, 대학시절 학점, 취업관련 대학의 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 졸업 전 구체적 취업목표 설정 여부, 어학연수에 지출한 비용 등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취업 여부에는 연령, 가정의 소득순위, 재학 중 근무경험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유리하며, 취업을 위해 별도의 사교육을 받는 것 또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가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속적 요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귀속적 요인의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대학이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대졸 청년층, 고용형태, 취업, 대기업 정규직

투고일: 2008년 6월 30일, 심사일: 7월 28일, 게재확정일: 8월 18일

* 이 논문은 '제1회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심포지엄 대학원생 논문공모' 부문에서 수상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withjoy79@hanmail.net),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bbgo11@hanmail.net)

I. 연구의 필요성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2004년 45.1%였던 청년 취업률은 해마다 하락하여 2007년에는 42.6%로 추락하였는데, 이는 전체고용률 59.8%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이다. 또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도 20~30대 인구 중에서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인구를 제외하고도 154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른바 '젊은 백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08. 4. 9; 해럴드경제, 2008. 4. 17).

노동시장 진입 실패가 끼치는 영향은 여타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에서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년 시기에 경험하는 노동력의 유희화는 기존의 인적자본을 감가상각할 뿐만 아니라, 근로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정착도를 저하시키게 된다(이병희, 2002). 또한 장기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포부나 열의를 낮추게 됨으로써 사회로부터 전반적인 소외현상을 겪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이기중·김은주, 2006; Ellwood, 1982). 사회적으로도 청년 실업은 사회적 총생산의 손실, 노동력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 노동력의 동태적 적응력 감소 등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 손실,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 등을 야기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경기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채구묵, 2007).

특히 최근 한국 사회에서 목도되는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대부분 고학력 실업 문제와 중첩되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 이후 고등교육 인구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 31%에 비해 상당히 높은 49%로 조사되고 있다(OECD, 2006). 이 같은 학력수준의 향상으로 구직자들은 높은 직업포부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에 걸맞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단순히 노동시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 것이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이들 중 상당수는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증가하게 된 비정규직 종사

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일을 해도 경제적 형편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 소위 ‘일하는 빈민(working poor)’을 양산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빈곤의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상당한 정도로 분단되어 있어서 비정규직 종사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남재량·김태기, 2000; 반정호·김경희·김경희, 2005).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작금의 한국사회가 직면한 청년층의 취업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기관의 역할을 포함하여 노동시장 진입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해야 하며, 동시에 이들 요인이 소위 팽창은 일자리를 얻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과연 누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가에 관한 분석도 병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 사회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과가 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기관이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의 심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¹⁾.

II. 이론적 배경

1.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설명하는 제 이론

취업 여부와 유형은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거두는 일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을 전제로 하여 임금

1) 물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여러 편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한국 사회가 그 어느 사회보다 역동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신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논의의 풍부화에 기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은 노동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질적 차이가 교육, 훈련 등에 의해 개인이 보유한 인적자본 축적량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인적자본 획득을 위한 노력을 개인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투자행위라고 한다. 결국, 이 이론은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거두는 성과의 차이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인적자본 투자량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성별, 인종, 학력, 연령 등으로 인한 차이 역시 구조적 차별의 결과라기보다는 개개인의 선택과 능력의 결과라고 설명한다(조민수, 2008; Becker, 1975).

이에 반해 Doeringer & Piore(1971)를 위시로 하여 제기된 노동시장 분단론(labor market segmentation theory)은 인적자본론의 완전경쟁 노동시장 가설을 부정한다. 이들은 한 사회에는 질적으로 다른 매커니즘에 의해 운용되는 노동시장이 병존한다고 본다. 즉, 일국의 경제는 생산규모, 기업조직의 특성, 시장조직의 특성, 기술 특성, 정부와의 관계 등에서 상이한 성격을 보유한 두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Hodson & Kaufman, 1982; 윤진호, 1989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들은 일국의 노동시장은 고임금·고용안정을 특징으로 하는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고용불안을 특징으로 하는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이들은 1차 노동시장에의 진입은 시장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할당(ration)되는 것이며,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이 매우 힘들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차별이론(statistical discrimination theory)에서는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에 주목하여 인적자본 이외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Arrow, 1972; Phelps, 1972). 구체적으로 이들은 기업이 근로자의 생산성이나 이직가능성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업은 과거의 통계적 관찰에 근거하여 성별, 인종, 학력, 연령 등과 같이 관찰 가능한 근로자의 특성에 의거해 채용, 임금, 승진 등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2.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개인배경 요인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개인특성이나 배경에 해당하는 요인들로 는 성별,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흔히 거론된다. 먼저 성별의 경우에는 노동

시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금재호, 2000; 김민경, 2003; 김안국, 2003; 박성재·반정호, 2006; 오세규, 2003; 이해민, 2008). 노동시장에서 남성이 선호되는 이유는 통계적 차별이론으로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 즉, 고용주들은 여성의 생산성이 남성보다 낮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나은 임금이나 고용상태를 향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지만, 일정 연령이 지나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효용·김민경(2003)의 연구에서는 15~29세 연령층은 미취업에서 정규직으로의 탈출에 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50세 이상 연령층은 정규직으로의 탈출 확률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도 취업하지 않는 이른바 NEET족 결정요인을 분석한 남재량(2006)은 연령 계수 추정치와는 달리 연령 제곱항의 추정치가 부정 부호를 보인다는 것을 근거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상태로 옮겨갈 확률이 크지만 그 정도는 점점 작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 또한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 및 성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대체로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미취업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높으며, 나아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성효용·김민경, 2003; 조우현, 1995). 나아가 방하남·김기현(2001)은 Blau & Duncan (1967)의 모형을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본 결과, 한국 사회에서는 부친의 학력→본인의 학력→본인의 초직→본인의 현직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가장 주된 세습·성취 경로라고 보고했다.

나. 교육 및 훈련 경험

학력은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변수이다.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학력이 높을수록 미취업보다는 취업할 확률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일 확률이, 외부노동시장보다는 내부노동시장에 속할 확률이, 그리고 임금수준이 높을 확률이 크다고 보고한다(금재호, 2000; 김민경, 2003; 류기철, 2001; 조민수, 2008). 그러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탈출 가능성을 추정한 이해민(2008)의 연구에서는 학력은 긍정적인 부호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한편 동일 학력 내에서는 소위 '학벌'로 대변되는 질적 차별화 변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 소재 대졸자들이 지방 소재 대졸자들보다 취업확률이 높다거나(오세규, 2003; 이두휴, 1993), 출신 대학이 미취업으로부터의 탈출확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규용·김용현, 2003)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학점’도 취업확률이나 1차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태영·이기엽(2005)은 대기업 취업에 학점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학점이 낮은 학생들은 눈높이를 낮추어 자기 수준에 맞는 기업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학점이 높은 졸업생과 학점이 낮은 졸업생 사이에 취업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학점이 높아야만 소위 팬찮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Arcidiacono(2004)의 연구 역시 수학능력과 대학 학점이 미래의 노동시장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전공도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 현상과 관련하여, 이공계 학생들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결과 이공계생들이 노동시장에서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연구(박성준, 2004)와 이러한 불이익은 지방대생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정태영·이기엽, 2005).

재학 중 일자리 경험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먼저 이병희(2002), 채창균(2003)의 연구는 재학 중 근로경험이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을 높이고 이행기간을 단축시킨다고 보고하면서, 이를 일자리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취업준비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이 취업확률, 임금 등 노동시장 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취업확률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김우영, 2002; 김준영·전용석, 2003). 한편, 자격증은 노동시장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컨대 일련의 연구들은 자격증이 미취업 대비 취업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강순희·박성재, 2002; 김우영, 2002), 이상준(2006)은 자격증이 5.5~9.9% 가량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자격증은 성별, 대학 유형 등 자격증 취득자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김안국·강순희, 2004; 이규용·김용현, 2003).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어학능력 요인이다. 최근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국제화 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도 외국어 구사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근래에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신대학(31.8%) 다음으로 어학실력(30.1%)을 꼽았으며, 기업체 인

사담당자, 헤드헌터 등 취업관련 전문인력들도 전공, 출신대학, 어학 순으로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바 있다(진미석·윤형한, 2003). 또한 판별분석을 통해 취업 및 미취업자를 판별한 이기종·김은주(2006)의 연구에서는 외국어 능력 변수가 취업과 미취업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1차년도 자료이다.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청년층²⁾에 해당하는 25,122명 중 4년제 대졸자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미취업자 범주의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와 일시휴직, 발령대기, 육아, 가사, 대학 또는 대학원 통학, 진학준비,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등의 사유로 미취업자로 남아있는 자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통학 중인 자, 취업준비, 구직활동 중인 자, 단순히 ‘쉬었다’고 응답한 자들은 미취업자로 분류하였다.

그런 후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에 충실하게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종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취업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짓분석에는 최종적으로 13,315명이 포함되었고, 취업자 가운데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 진입여부에 대한 이항 로짓분석에는 미취업자를 제외한 11,608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2. 변인 설정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의 경우, 취업 여부에 대한

2) 청년층의 연령 범주는 남재량(2006)을 참조하여 15~3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GOMS 데이터에서는 19세 미만 연령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9~34세에 해당되는 25,122명이 1차 분석대상이 되었다.

이항 로짓 분석에서는 미취업에 0, 취업(비정규직·정규직 모두 포함) 상태인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하여 변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 취업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짓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독립변수로는 1단계 모형에서 성별, 연령, 부모학력, 대학 입학 당시 가구소득 등 개인 배경을 포착할 수 있는 변인들이 투입되었다. 성별은 더미변수로서 여성이면 0, 남성이면 1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연령은 연속변수로 그대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부모학력은 교육 연한으로 전환하여 부모학력의 평균값으로 사용하였는데, 부 또는 모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값을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은 대학 입학 당시의 월 평균 총 가구소득을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200~300만 원, 300~400만 원, 400~500만 원, 500~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 것을 응답치의 분포를 고려하여 200만 원 이하, 200~300만 원, 300~500만 원, 500만 원 이상으로 재범주화 하여 200만 원 이하를 준거집단으로 한 더미변수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2단계 모형에서는 응답자의 대학교육 및 전공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 대학소재지, 전공영역, 학점, 다(多)전공 이수 여부, 대학의 취업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이 추가되었다. 대학소재지는 서울 소재 대학의 프리미엄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에 1의 값을, 나머지 대학에 0의 값을 부여하여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전공영역은 본래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공학계, 예체능계, 교육계, 의약계로 조사된 것을 인문·사회계, 자연·공학계, 예체능계, 교육계, 의약계로 재범주화 하고, 소위 이공계 취업난 문제를 살펴보고자 자연·공학계를 준거집단으로 한 더미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학점은 '졸업학점(평점)은 어느 등급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 최하위권, ② 하위권, ③ 중위권, ④ 상위권, ⑤ 최상위권으로 조사된 것을 그대로 연속변수로 활용하였으며, 다(多)전공 이수 여부는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을 이수한 경우에 1,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 변인은 전공, 학교의 여러 프로그램(장학제도, 인턴십 등), 취업 지원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은 각각 ① 매우 불만족~⑤ 매우 만족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본 분석에서는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후, 이들 3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3단계 모형에서는 취업준비 노력이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보유 자격증 수, 어학연수비, 취업 사교육비, 재학 중 직장근로경험, 졸업 전 구체적 취업목표 설정 여부 등

이 새로 추가되었다. 우선 보유 자격증 수는 연속변수로 그대로 투입하되, 빈도분석을 통해 16 이상의 값은 극단치로 보고 변수값이 0~15의 범위를 갖도록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어학연수비와 취업사교육비는 각각 어학연수와 취업을 위한 사교육에 직접 지출한 비용의 총합을 의미하며, 편포에 따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로그값으로 전환해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재학 중 직장근로경험은 '대학 재학 중 직장을 다닌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그 이유가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만을 따로 선별하여, 이들에게 1의 값을, 여타의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또한 졸업 전 구체적 취업목표 설정 여부는 미리 구체적인 취업목표를 설정했다고 답한 경우에 1,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에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구성되었다. 아래의 <표 1>은 상술한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분석에 투입된 변인의 기술통계치

| 변인 | 취업여부 모형 (n=13,315) | | 대기업 정규직 취업 모형 (n=11,608)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종속변수] 취업 여부 | .8718 | .3343 | - | - |
| [종속변수] 대기업 정규직 여부 | - | - | .2647 | .4412 |
| 성별(남성) | .5401 | .4984 | .5463 | .4978 |
| 연령 | 26.3353 | 2.0007 | 26.3792 | 2.0108 |
| 부모학력 | 11.6115 | 3.2107 | 11.6505 | 3.2270 |
| 대학입학 당시 가정의 소득순위(200~300만 원) | .3097 | .4623 | .3027 | .4594 |
| 대학입학 당시 가정의 소득순위(300~500만 원) | .3375 | .4728 | .3398 | .4736 |
| 대학입학 당시 가정의 소득순위(500만 원 이상) | .1375 | .3444 | .1434 | .3505 |
| 대학소재지(서울) | .2979 | .4573 | .3069 | .4612 |
| 전공(인문·사회계열) | .3902 | .4878 | .3778 | .4848 |
| 전공(교육계열) | .1046 | .3060 | .1036 | .3048 |
| 전공(의약계열) | .0400 | .1958 | .0430 | .2028 |
| 전공(예체능계열) | .0711 | .2570 | .0725 | .2593 |
| 다(多)전공 이수 여부 | .2226 | .4160 | .2218 | .4155 |
| 평균 학점수준 | 3.5191 | .7349 | 3.5314 | .7351 |
| 대학의 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 | 3.1555 | .7047 | 3.1792 | .7047 |
| 보유 자격증 수 | 1.4299 | 1.4624 | 1.4146 | 1.4669 |
| 졸업 전 구체적 취업목표 설정 여부 | .6299 | .4828 | .6219 | .4893 |
| 어학연수 비용(자연로그) | 1.0316 | 2.4725 | 1.0689 | 2.5097 |
| 취업 사교육 비용(자연로그) | 1.6065 | 2.1475 | 1.5920 | 2.1509 |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이므로 이항 로짓분석을 사용하여 해당 요인들의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 지는데, 첫 단계에서는 전체 4년제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찰한 후, 다음 단계에서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변되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게 된다. 이상의 통계분석에는 SPSS 12.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IV. 분석 결과

1. 취업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짓분석

취업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모형 I에서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기본 배경변인을 나타내는 변수를 투입하였고, 모형 II에서는 대학 및 전공특성과 같은 대학교육경험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최종 모형인 모형 III에서는 취업을 위한 다양한 준비활동의 효과와 관련된 변인들을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 I에서는 연령, 부모학력,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 통제변수로 투입한 연령의 경우,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나이가 많을수록 미취업보다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취업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한편 부모학력과 대학입학 당시 가구소득의 경우,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미취업 대비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소득의 경우 월소득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 비해 5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출신 학생들은 취업상태일 확률이 1.439배(=exp(.364)) 높았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모형 II에서 대학 및 전공특성 관련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모형 I에서 유의했던 부모학력 변인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학력이 2단계에 투입된 변인을 매개로 자녀의 취업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는 서울소재 대학 여부가 그 매개변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³⁾

그 외에도 전공, 평균 학점수준, 취업관련 대학의 지원활동 만족도 등의 변인도 취업 여부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전공의 경우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이공계에 비해 인문·사회계열, 교육계열은 취업 확률이 낮지만, 의약계열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공계에 비해 의약계열을 선호하는 것이 개인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이유 있는 판단임을 뜻한다. 또한 인문·사회계 졸업생들의 취업 여건은 이공계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예체능계도 부적(negative) 부호를 나타냈으나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한편,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등 다(多)전공 이수 여부는 취업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대학생활을 통해 획득한 평균 학점수준이나 취업관련 대학의 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평균 학점 수준이 높을수록 미취업으로 머물기보다 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일종의 선별가설 효과로 볼 수 있다. 고용주가 구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힘든 상황에서 학점은 개인의 일반적인 능력이나 성실성을 대변하는 지표로 기능하며, 이러한 연유로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의미있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이 제공하는 장학금·인턴십 등 학생지원 프로그램, 취업관련 활동, 그리고 전공강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사후적으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했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나타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대학의 소재지, 개인의 취업준비 노력, 전공 등과 같은 여타의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유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며, 이것이 대학의 서열과 상당 정도 일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자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안재희, 2006). 즉, 대학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학생들은 제도적 사회자본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에 도움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준비 노력과 관련된 변인들을 투입한 모형Ⅲ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

3) 실제로 2단계에 투입된 변인들과 부모학력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타 변인들은 .015~.081의 낮은 상관을 보인 반면, 대학소재지(서울) 변인은 $r = .206(p < .001)$ 으로 나타나 다른 변인들보다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면, 모형Ⅱ에서 유의하게 검증된 변인들의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 투입한 변인 중에서는 재학 중 근무경험, 취업목표 설정 여부, 어학연수 비용 등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보유 자격증 수나 취업 사교육비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학 중 근무경험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 바, 대학생들이 재학 중 갖게 되는 근무경험이 향후 취업 등 노동시장 진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는 해당 문항이 단순 아르바이트까지 모두 포함함으로써 근무경험의 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인턴십과 같이 기업들이 제공하는 체계적인 근무경험은 도움이 되지만 단순 아르바이트는 사실상 취업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운데, 해당 문항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의 질적 차이를 반영해 인턴십과 아르바이트를 구별해 살펴본 오세규(2003)의 연구에서도 인턴십 참가는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졸업 전 구체적으로 취업목표를 설정한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보다는 미취업으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를 취업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것이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다소 의외로 보이는 이 같은 결과는 일차적으로는 취업하지 못한 대졸자든 취업에 성공한 대졸자든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나름대로 취업목표는 설정하고 있었던 바, 취업목표 설정 자체가 미취업자와 취업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⁴⁾ 그리고 이차적으로, 종속변수가 미취업·취업 여부만을 반영할 뿐, 취업의 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정규직이나 전문직 등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향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임시직·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는 데는 그 같은 준비가 반드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학시절부터 구체적인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준비를 한 학생들은 아무 일자리나 얻기보다는 조금

4) 실제로 취업 여부와 취업목표 설정 여부에 대한 교차표를 통해 응답치의 분포를 살펴보면, 두 변수 간에 그리 큰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13,315명의 전체 응답자 가운데 졸업 전 취업목표가 없었다는 응답자가 37.0%, 있었다는 응답자가 63.0%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취업상태에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졸업 전 취업목표가 있었다는 응답이 62.2%, 없었다는 응답이 37.8%로 분석되었다. 한편 미취업자 집단에서도 취업목표가 있었다는 응답이 68.4%, 없었다는 응답이 31.6%로 나타나 미취업자들이 목표설정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이 희망한 일자리를 얻고자 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이들은 미취업으로 남을 확률이 크다. 이러한 연유로 상술한 결과가 유발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어학연수비용은 취업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취업을 위해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일자리를 얻는 데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어학연수는 학생들의 어학실력은 물론, 국제감각이나 국제사회 경험을 대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따라서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고용주들에게는 해외 어학연수 경험을 가진 구직자들이 그렇지 않은 구직자들보다 더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어학연수 여부가 아닌 어학연수 비용으로 투입한 변인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된 바, 이는 어학연수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미국, 영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단기보다는 장기간 연수를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4년제 대졸자 취업 여부 영향요인에 대한 이항 로짓 분석 결과

| 변 인 | 모형 I | | 모형 II | | 모형 III | |
|------------------------------|-------------------|--------|-------------------|--------|-------------------|--------|
| | B (S.E.) | Exp(B) | B (S.E.) | Exp(B) | B (S.E.) | Exp(B) |
| 상 수 | -1.015* | | -2.206*** | | -1.574** | |
| 개인특성변인 | | | | | | |
| 성별(남성) | -.024 (.071) | .976 | -.063 (.076) | .939 | -.047 (.076) | .954 |
| 연령 | .101*** (.019) | 1.106 | .095*** (.019) | 1.100 | .082*** (.019) | 1.085 |
| 부모학력 | .025** (.009) | 1.025 | .017 (.009) | 1.017 | .014 (.009) | 1.014 |
| 대학입학 당시 가계소득 (200~300만 원) | -.126 (.071) | .882 | -.142* (.072) | .867 | -.145* (.072) | .865 |
| 대학입학 당시 가계소득 (300~500만 원) | .070 (.075) | 1.072 | .049 (.076) | 1.050 | .029 (.076) | 1.030 |
| 대학입학 당시 가계소득 (500만 원 이상) | .364*** (.104) | 1.439 | .337** (.105) | 1.401 | .308** (.106) | 1.361 |
| 대학 및 전공특성 | | | | | | |
| 대학소재지(서울) | | | .283*** (.064) | 1.327 | .272*** (.064) | 1.312 |

(표 계속)

| 변 인 | 모형 I | | 모형 II | | 모형 III | |
|--------------------------|-----------|--------|--------------------|--------|--------------------|--------|
| | B (S.E.) | Exp(B) | B (S.E.) | Exp(B) | B (S.E.) | Exp(B) |
| 전공(인문·사회계열) | | | -.498*** (.061) | .608 | -.513*** (.062) | .599 |
| 전공(교육계열) | | | -.306** (.096) | .736 | -.226* (.097) | .798 |
| 전공(의약계열) | | | .510** (.187) | 1.665 | .501** (.188) | 1.650 |
| 전공(예체능계열) | | | -.049 (.116) | .952 | -.064 (.116) | .938 |
| 다(多)전공 이수 여부 | | | .015 (.065) | 1.015 | .024 (.066) | 1.024 |
| 평균 학점수준 | | | .158*** (.037) | 1.171 | .181*** (.037) | 1.199 |
| 취업관련 대학의 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 | | | .344*** (.038) | 1.410 | .342*** (.038) | 1.408 |
| 취업준비 노력 | | | | | | |
| 보유 자격증 수 | | | | | -.023 (.018) | .977 |
| 재학 중 근무경험 | | | | | -.153* (.062) | .858 |
| 졸업 전 구체적 취업목표 설정 여부 | | | | | -.284*** (.058) | .753 |
| 어학연수 비용(로그) | | | | | .045*** (.012) | 1.046 |
| 취업 사교육 비용(로그) | | | | | -.018 (.012) | .982 |
| N | 13,315 | | 13,315 | | 13,315 | |
| -2log Likelihood | 10102.432 | | 9879.490 | | 9815.868 | |
| Model Chi-square | 95.607*** | | 318.550*** | | 372.582*** | |

주: * $p < .05$, ** $p < .01$, *** $p < .001$

2. 대기업 정규직 취업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짓분석

다음으로,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 정규직 취업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종 모형인 모형Ⅲ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은 대기업 정규직 취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변인들을 통제된 상황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1.773배($=\exp(.573)$)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취업여부 결정요인 분석에서 성별이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구별되는 점이다. 그 외에 연령, 부모학력, 대학입학 당시 가정의 소득순위와 같은 배경변인은 모형 I·모형 II에서는 영향을 미쳤으나, 여타 변인들이 모두 투입된 최종모형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가정의 소득수준이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은 앞서 살펴본 취업여부 결정요인 분석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다. 이는 취업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취업 여부에는 성별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저소득층 대비 고소득층 출신 학생들이 미취업에 비해 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지만, 취업의 질을 고려한 대기업 정규직 취업여부에서는 성별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며, 가정의 소득수준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대기업 취업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단순히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의 학력수준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백병부·김경근, 2007) 졸업한 대학의 서열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어학연수비와 같은 변인들이 대기업으로의 취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야 이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는 대학서열 정보나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성취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정은 대학의 소재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서울소재 대학 졸업자들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 훨씬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같은 4년제 대졸 임금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서울소재 대학 졸업생들은 비서울소재 대학 졸업생들보다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확률이 2.344배($=\exp(.852)$) 더 높았다. 또한 어학연수 비용과 취업 사교육 비용도 모두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대학진학과 어학연수 및 취업 사교육 지원이라는 매개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기업 취업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공 역시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이공계 졸업자들은 인문·사회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졸업생들보다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의약계열 졸업생들보다는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취업에 유리한 교육계열 졸업생이 이공계 졸업생보다 대기업 정규직 취업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은 현실적으로 교육계열 졸업생들이 취업하는 곳이 300인 이상 근로자들로 구성된 사업장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즉, 이들이 주로 취업하는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개별 사업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평균 학점수준이 높을수록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취업과 관련하여 대학이 제공한 지원활동에 만족할수록, 바꿔 말해서 대학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취업여부 결정요인 분석결과와 상응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보유 자격증 수, 졸업 전 구체적 취업목표 설정 여부 등이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보유 자격증 수의 효과는 부적인 추정을 나타내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대기업 취업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 개인이 보유한 자격증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그 자격증이 지니는 가치나 자격증 획득의 난이도가 오히려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증은 이른바 전문직 자격증이 대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같은 전문직 자격증은 여러 개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자격증이 너무 많다는 것은 그리 높은 기술수준을 요하지 않는 난이도의 자격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뜻하며, 이런 자격증을 주로 보유한 사람들은 낮은 기술수준을 요하는 2차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바,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서는 오히려 부적 효과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풀이된다.

다음으로 졸업 전 구체적인 취업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취업여부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는 유의하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용직·임시직 등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취업여부에는 취업목표 설정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점, 영어성적, 다양한 경험 등 이른바 경력관리가 필요한 바, 미리 취업목표를 정하고 이를 준비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대기업 정규직 취업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짓 분석 결과

| 변인 | 모형 I | | 모형 II | | 모형 III | |
|------------------------------|---------------------|--------|---------------------|--------|---------------------|--------|
| | B (S.E.) | Exp(B) | B (S.E.) | Exp(B) | B (S.E.) | Exp(B) |
| 상수 | -3.294*** (.365) | .037 | -3.908*** (.432) | | -3.582*** (.446) | |
| 개인특성변인 | | | | | | |
| 성별(남성) | .694*** (.057) | 2.003 | .540*** (.064) | 1.716 | .573*** (.065) | 1.773 |
| 연령 | .050*** (.014) | 1.052 | .030 (.016) | 1.030 | .019 (.016) | 1.019 |
| 부모학력 | .036*** (.007) | 1.037 | .022** (.008) | 1.023 | .015 (.008) | 1.015 |
| 대학입학 당시 가계소득 (200~300만 원) | .038 (.062) | 1.039 | .022 (.065) | 1.022 | .007 (.065) | 1.007 |
| 대학입학 당시 가계소득 (300~500만 원) | .170** (.063) | 1.185 | .107 (.066) | 1.113 | .065 (.066) | 1.067 |
| 대학입학 당시 가계소득 (500만 원 이상) | .220** (.078) | 1.246 | .115 (.082) | 1.121 | .044 (.083) | 1.045 |
| 대학 및 전공특성 | | | | | | |
| 대학소재지(서울) | | | .883*** (.049) | 2.418 | .852*** (.049) | 2.344 |
| 전공(인문·사회계열) | | | -.494*** (.051) | .610 | -.522*** (.051) | .593 |
| 전공(교육계열) | | | -2.675*** (.171) | .069 | -2.592*** (.172) | .075 |
| 전공(의약계열) | | | .324** (.103) | 1.383 | .429*** (.104) | 1.536 |
| 전공(예체능계열) | | | -1.333*** (.115) | .264 | -1.299*** (.116) | .273 |
| 다(多)전공 이수 여부 | | | -.021 (.058) | .979 | -.060 (.059) | .941 |
| 평균 학점수준 | | | .235*** (.031) | 1.265 | .227*** (.032) | 1.255 |
| 취업관련 대학의 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 | | | .219*** (.032) | 1.244 | .211*** (.033) | 1.235 |
| 취업준비 노력 | | | | | | |
| 보유 자격증 수 | | | | | -.051** (.017) | .950 |
| 재학 중 근무경험 | | | | | .001 (.050) | 1.001 |
| 졸업 전 구체적 취업목표 설정 여부 | | | | | .135** (.048) | 1.145 |
| 어학연수 비용(로그) | | | | | .064*** (.009) | 1.066 |
| 취업 사교육 비용(로그) | | | | | .027* (.011) | 1.027 |
| N | 11,608 | | 11,608 | | 11,608 | |
| -2log Likelihood | 13016.473 | | 11950.001 | | 11860.808 | |
| Model Chi-square | 384.378 | | 1450.850 | | 1530.836 | |

주: * $p < .05$, ** $p < .01$, *** $p < .001$

V. 요약 및 결론

그 어느 사회보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청년층이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개인이 받은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보상 받는 길이며, 향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시장 성과는 사회경제적 지위로 직결되는 바, 계층 이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이나 사회 전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개개인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는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기반을 두고 청년층의 취업여부 및 대기업 정규직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여부 및 대기업 정규직으로의 취업여부에는 대학소재지, 전공, 학점, 대학의 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 졸업 전 구체적 취업목표 설정 여부, 어학연수에 지출한 비용 등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취업여부에는 연령, 가정의 소득순위, 재학 중 근무경험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는 고소득 가정 출신인 것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취업여부에 영향을 끼쳤던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취업사교육을 받는 것 또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에게 계층 이동과 관련하여 가변적 측면과 불변적 측면의 양면을 동시에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대학의 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고용여부 및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대학들이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강좌나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적절히 제공하면, 취업확률, 더 나아가 보다 나은 일자리 획득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데, 이는 향후 고등교육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 측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배경의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불변적 측면의 영향력 또한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가정배경이 노동시장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밀접히 연

계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실업상태로 남기보다는 취업할 확률이 컸고, 경제자본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여학연수, 취업 사교육 또한 고용지위 획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배경은 독립적인 효과를 발휘함과 동시에 여타의 매개변인들을 통해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성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불변적 측면의 영향력 또한 가변적 측면의 영향력 못지않게 크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할 일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간접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영향을 끼쳐 계층을 고착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양극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변성을 지닌 요인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고, 가변성을 지닌 요인의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 드러난 바와 같이, 대학의 서열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들이 양질의 교육과 프로그램을 취업준비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취업준비생들이 제도적 사회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며 나아가 학생들이 사전에 명확한 취업목표를 가지고 진로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는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이 취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지 못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경주될 때, 노동시장에서의 재생산구조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강순희·박성재(2002). 「청년층의 학교교육과 직무의 일치」,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중앙고용정보원.
- 금재호(2000). 「비정규직 함정은 존재하는가?」, 『노동동향분석』, 제13권 제4호, 37~53쪽, 한국노동연구원.
- 김민경(2003). 「정규·비정규직으로의 미취업 탈출요인에 대한 연구: 고용형태별 및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안국(2003).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6권 제1호, 23~52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안국·강순희(2004). 「자격취득의 결정요인 및 취업, 임금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7권 제1호, 1~25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우영(2002). 「학력, 훈련, 아르바이트, 자격증의 경제적 효과」,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중앙고용정보원.
- 김준영·전용석(2003). 「청년층 취업자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제2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중앙고용정보원.
- 남재량(2006).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 남재량·김태기(2000). 「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노동경제논집』, 제23권 제2호, 81~106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류기철(2001). 「취업형태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4권 제1호, 207~230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박성재·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제29권 제3호, 29~50쪽, 한국인구학회.
- 박성준(2004).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이공계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27권 제1호, 55~76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반정호·김경희·김경희(2005).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

- 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3호, 73~103쪽, 한국사회복지학회.
- 방하남·김기현(2001). 『변화와 세습: 한국사회의 세대 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제35권 제3호, 1~30쪽, 한국사회학회.
- 백병부·김경근(2007). 『학업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제3호, 101~129쪽, 한국교육사회학회.
- 성효용·김민경(2003). 『여성의 미취업탈출요인에 대한 연구: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65호, 117~148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재희(2006). 『대졸 여성의 취업에 대한 제도적 사회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2호, 85~110쪽, 한국교육사회학회.
- 오세규(2003). 『대졸자의 취업확률 결정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호(1989). 『불안정 취업자층과 이중노동시장』,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연구논문집』, 제3권, 227~246쪽,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 이규용·김용현(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3권 제2호, 69~94쪽, 한국노동연구원.
- 이기중·김은주(2006). 『취업 및 미취업을 결정하는 요인 탐색』, 『교육논총』, 제26권 제1호, 17~37쪽,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두휴(1993). 『학력 인플레이션의 지역 간 분화와 지역 격차』, 『교육학연구』, 제31권 제3호, 133~149쪽, 한국교육학회.
- 이병희(2002).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중앙고용정보원.
- 이상준(2006). 『자격증이 임금, 노동이동에 미치는 효과: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29권 제2호, 145~169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이혜민(2008).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비정규직 탈출 결정요인』,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 정태영·이기엽(2005). 『대졸자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학점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제8권 제2호, 159~184쪽, 한국경영학회.
- 조민수(2008).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 조우현(1995). 『청년층 노동자의 고용문제와 실업확률의 결정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 제18권 제1호, 107~128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진미석·윤형한(2003). 『미래의 직업세계 2003: 대학 재학생 희망직업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구묵(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4호, 35~61쪽, 한국사회복지학회.
- 채창균(2003). 「대학생의 재학 중 일자리 체험과 취업준비」, 『직업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169~184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파이낸셜뉴스(2008. 4. 9). 「30대 기업 신규채용 확 줄었다」, 파이낸셜뉴스.
- 헤럴드경제(2008. 4. 17). 「20, 30대 10명 중 1명은 백수」, 헤럴드경제.
- Arcidiacono, P.(2004). "Ability Sorting and the Returns to College Major", *Journal of Econometrics*, Vol.121 No.1-2, pp. 343~375.
- Arrow, K.(1972). "Models of Job Discrimination", in Anthony, H. P.(eds.), *Racial Discrimination in Economic Life*, MA: Lexington Books.
- Becker, G. S.(1975).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au, P. M. & Duncan, O. D.(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Y: Wiley.
- Doeringer, P. B. & Piore, M. J.(1971). *Internal Labor Market and Manpower Analysis*, MA: D.C. Heath and Company.
- Ellwood, D. T.(1982). "Teenage Unemployment: Permanent Scars or Temporary Blemishes?", in Freeman, R. B. & Wise, D. A.(eds.),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dson, R. & Kaufman, R. L.(1982). "Economic Dualism: A Critical Review",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7 No.6, pp. 727~739.
- OECD(2006). *Education at a Glance*, Paris: OECD.
- Phelps, E. S.(1972). "The Statistical Theory of Racism and Sexism",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2 No.4, pp. 659~661.

abstract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of University Graduates Youth

Yeo-jung Hwang

Byoung-bu Baek

Using a sample from a 1st wave of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this study attempts to ascertain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of university graduates youth in labor market. In this article, employment status was measured by two aspects, whether employed or unemployed, and being full-time job at the large corporation or not. The results reveal that variables such as location of university, major, GPA,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providing services, whether setting a concrete career goal before graduating or not, and cost spent in language training abroa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labor market status (employed/unemployed, and being full-time job in large firms/part-time job) in common. Also, age and the household income level in those days of entering university exert an influence on probability of being employed. Likewise, those graduates who are male and have experiences of supplementary private education to be employed are advantageous than female and those who did not.

These findings imply that employment status of university graduates youth is determined by not only individuals' ability but also inborn traits. From these results, the authors suggest that to alleviate the effects of inborn traits, we should make a lot of effort such as providing university students with various and good programs.

Keyword: University graduates youth, Employment status, Full-time job in large firms